## 수영복에 수박 먹는 DJ 미공개 사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 가운데 그동안 언론 등에 소개된 적이 없던 사진 3장이 13일 공개됐다.

경기도 의왕시 김성제 시장은 오는 15~16일 의왕여성회관에서 열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 사진전을 앞두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김 전 대통령 사진 9장 가운데 3장을 미리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은 김 전 대통령이 1989년 야당 총재시절 변산반도에서 한광옥 비서실장 등 지인들과 함께 해수욕을 하거나 백사장에서 일반 시민들과 어울려 찍은 사진으로, 인간적이고 진솔한 모습이 담겨 있다.

사잔 위는 수영복 차림의 김 전 대통령이 변산해수욕장에서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 가운데는 수박을 먹고 있는 김 전 대통령. 아래는 한광옥 전 비서실장과 해변을 걷고 있는 김 전 대통령. /의왕시 제공·연합뉴스

# "5·24 조치 유효"…쌀 5000t '상징적 수준'

## 정부, 대북 수해지원 인도주의에 방점

## 중장비 빠져…北 답변오면 배편 북송

대한적십자사(한적)가 13일 발표한 대북 수해지원은 품목이나 규모면에서 '인도주의 지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적 유종하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의주 지역 수해지원을 위해 쌀 5000t과 시멘트 1만t, 컵라면 300만개 등 긴급구호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는 한적이 당초 밝혔던 100억원 수준이고, 수송료 등을 감안해도 최대 120억원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한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쌀 5000t은 그동안 한적과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에도 한적을 통해 대북 수해지원용으로 쌀 10만t을 제공했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거의 매년 정부 차원에서 30만t 이상의 쌀을 북측에 지원해왔다.

유 총재는 "신의주 지역 수재민이 약 8만~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며 "5000t은 1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100일간, 20만명을 기준으로 50일간의 식량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측이 요구했던 중장비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도 주목된다. 전략물자로 전용될 가능성과 수해복구 이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북 민간단체와 여야 정치권의 '통 큰' 지원 요구에도 정부와 한적이 인도주의 수준에서 지원품목과 규모를 결정한 것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조치'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쌀을 비롯해 북측이 원하는 대규모 지원은 북측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은 천안함 사태 등에 대한 북측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에 대해 "5.24조치에 따른 남북관계, 북한의 식량사정,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한적은 국내산 쌀 가운데 2007년 쌀을 구입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7년산 쌀 재고량은 5만t으로, 해당 연도의 정부관리양곡 판매고시가격은 1t당 154만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측에 지원키로 한 쌀 5000t의 구매가는 약 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 1만t 구매에는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적은 이날 북측에 보낸 수해지원 통지문에 대해 답신이 오면 곧바로 지원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쌀과 시멘트는 구매절차가 필요한 만큼 긴급식량과 생필품, 의약품 등 긴급구호품을 먼저 보낼 가능성도 있다.

대북 수해지원 물자는 배편을 통해 신의주항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단둥을 거쳐 육로로 전달하거나 육로로 개성을 통해 전달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 "北 CHT-02D 어뢰 의한 폭발"

## 폭약성분 미검출 이유·북한산 잉크 입증 못해 의혹 여전

### '천안함' 최종 보고서

국방부는 13일 천안함이 잠수함에서 발사된 음향유도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

지난 5월20일 조사결과 발표 이후 4개월여 만에 발간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당시 발표와 동일한 것으로 자세한 시뮬레이션 자료 및 관련사진 등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충격파와 버블효과를 일으켜 선체가 절단되고 침몰했으며 수중 폭발지점은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라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 사용되는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제해사기구의 함정 침몰사고 분석틀인 비(非)폭발과 외부폭발, 내부폭발로 구분해 분석했으며 비폭발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좌초' 가능성을 배제했다.

보고서는 "우현 프로펠러 변형 분석 결과 좌초됐을 경우에는 프로펠러 날개가 파손되거나 전체에 긁힌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손상이 없어 5개 날개가 함수 방향으로 동일하게 굽어지는 변형이 발생했다"며 "스웨덴 조사팀은 이 같은 변형은 좌초로 발생할 수 없고 프로펠러의 급작스런 정지와 추진축의 밀립 등에 따른 관성력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폭발 유형을 수상폭발(순항·탄도미사일), 기뢰폭발, 어뢰폭발, 육상조종기뢰(MK-6) 폭발 등으로 구분해 미국과 한국의 조사팀이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미국과 영국, 한국 조사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어뢰에 의한 폭발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한국 조사팀은 수심 7m에서 TNT 300kg의 폭발력에 의해 침몰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천안함 생존자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경비구역에서 정상적인 항로로 운항하다가 당했고, 순간적으로 함정이 절단된 점 등을 고려해 침몰원인을 어뢰에 의한 폭발로 인식했다는 생존 장병들의 진술한 내용도 자세히 소개했다.

사고 직후 천안함 최원일 함장은 직속상관인 22전대장인 이원보 대령에게 "어뢰 같다"는 내용으로 통화했고, 통신장 허순행 상사는 레이더기지 당직병과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교신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천안함의 우현 프로펠러가 한쪽으로 휘어진 경위와 천안함 내·외부에선 폭약성분이 발견됐지만 어뢰추진체에서는 폭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어뢰추진체가 북한산(産)임을 입증하는 어뢰 카탈로그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나 어뢰추진체에 쓰인 1번 잉크가 북한산임을 입증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혔다.

게다가 합조단에 참여했던 4개국 중 스웨덴은 자신들이 참여했던 부분에 동의한다며 최종보고서에 대한 제한적인 동의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프로펠러 문제는 좌초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들이 꼽은 핵심 의혹인데도 우현 프로펠러가 한쪽 방향으로 구부러진 반면 좌현 프로펠러는 멀쩡한 이유에 대해 시원스러운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천안함 선체에선 HMX, RDX, TNT 등의 폭약 성분이 검출됐지만 정작 어뢰추진체에서는 폭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합조단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판단한 어뢰의 추진체가 '북한산 CHT-02D'임을 입증하는 북한산 어뢰 카탈로그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 한나라 "진실 확실히 규명" 민주당 "의혹만 더 키웠다"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국방부의 천안함 최종 보고서와 관련, 한나라당은 "진실이 확실히 규명됐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의혹만 더 키웠다"며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인터뷰 등에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3명 중 2명이 믿지 못한다"면서 "이런 의혹을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를 재가동해 한번 걸러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프로펠러 휘어짐 현상 해명 부실 ▲어뢰손상 지표 9가지 중 4개 항목이 '해당 없음'으로 조사돼 어뢰피격 증거부족을 자인 ▲어뢰추진에 추정 물체에서 폭약성분 미검출 등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국과 스웨덴이 참여한 객관적 조사를 세계 주요국들이 인정했다"며 "진실이 확실하게 규명된 것이고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천안함공격대책특위 자문위원을 역임한 한기호 의원은 "국내는 물론 외국 전문가들까지 참여해서 펴낸 이 보고서보다 더 공신력 있는 보고서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 및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고서를 읽어본 결과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이 침몰당했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옆):032)329-4400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구 동명극장 앞):055)745-9870 창원점(한마음병원 뒤):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